■ 민족문화연구 제112호(2026.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63-092.
http://doi.org/10.17948/kcs.2026..112.063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의 은유 체계와 시대적 변화 고찰

고명주(高明珠)*

목 차

1. 들어가며
2. 시대별 회색 은유의 전개 양상
3. 회색 은유의 의미 구조와 전이 양상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현대문학에서 '회색'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대적 감각과 주체의 내면을 형상화해 왔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무채색으로서 중간성, 불확정성, 침체의 의미를 지니며, 문학작품 속에서는 시대 현실과 인간 존재의 불투명성을 드러내는 은유로 확장된다. 본고는 1930년대 이후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 계열 표현의 용례를 검토하고, 이를 시대별 변화와 의미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1950년대의 회색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을, 1960-1970년대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을,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를,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을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색은 하늘·도시·집·생활도구를 물들이는 공간의 색, 얼굴·청춘·인간을 탈색시키는 존재의 색, 회색분자·회색빛 침묵·회색지대와 같이 언어와 인식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색으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본고는 회색이 단순한 우울의 표지가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에서 역사, 사회, 주체, 언어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복합적 색채 은유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회색, 회색빛, 색채 은유, 한국 현대문학

1. 들어가며

문학작품에서 색채는 단순히 대상을 묘사하는 시각적 요소에 그치지 않는다. 색채는 인물의 심리, 시대적 분위기, 사회적 현실, 서술자의 인식 태도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한국 현대문학에서 색채어는 근대 이후 주체가 경험한 불안, 상실, 억압, 소외, 생존의 감각 등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 계열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회색이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놓인 무채색을 말하며, 사전적으로는 "재의 빛깔과 같이 흰빛을 띤 검정"으로 풀이된다.[1] 이 정의에서 확인되듯이 회색은 한쪽으로 선명하게 귀속되는 색이 아니라,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에 놓인 색이다. 이러한 중간성 때문에 회색은 중립성, 불확정성, 모호성의 의미를 지니기 쉽다. 동시에 회색은 채도가 낮고 생동감이 약한 색이기 때문에 침체, 우울, 무기력, 소외, 감각의 마모 등과 같은 감정과 자주 연결된다.

색채론의 관점에서 보아도 회색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색을 "빛의 스펙트럼 현상에 의해 구별되어 인지되는 광학적 물리현상"으로 정의한다. 이는 색이 우선 물리적·광학적 현상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색은 물리적 현상인 동시에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경험을 통해 의미화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색채심리 연구에서도 뉴턴은 색채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파악한 반면, 괴테는 색채를 인식 주체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 실체로 접근하였다고 설명한다.[2] 이처럼 색은 객관적 속성과 주관적 인식이 함께 작용하는 대상이며, 이로 인해 문학 속 색채어 역시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회색」 항목, 검색일: 2026.05.01.
2) 최선우, 「색채가 인간심리에 미치는 특성 연구 — 1차색과 무채색 중심」, 『한국범죄심리연구』 17-4,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243-244면.

단순한 색명 이상의 상징적, 정서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예로부터 회색은 바위, 돌, 먼지, 금속 등 자연과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색이므로 친숙하고 평범한 색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회색은 공장, 기계, 콘크리트, 스모그, 먼지 등과 결합하면서 산업사회와 도시 문명을 표상하는 색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회색은 자연스러움과 일상성의 색인 동시에, 근대 도시의 비인간성, 산업화된 환경, 고립과 우울을 드러내는 색이기도 하다.

한편 회색의 상징성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데, 회색은 중립성, 객관성, 균형, 절제,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동감의 결여, 감정적 거리감, 침묵, 쓸쓸함, 불투명성을 환기한다. 이 양면성은 문학에서 회색이 다양한 은유로 확장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문학에서 회색은 특정 사물의 색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의 불명확성, 주체의 흔들림, 산업화된 공간의 황폐함, 인간관계의 침묵, 감각의 둔화를 표현하는 기호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은유'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는 수사적 장식만을 뜻하지 않는다. 은유는 특정한 감각적 속성이 다른 경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대상을 이해하고 조직하는 인식의 방식이다.[3] 개념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은유는 근원 영역의 의미 구조가 목표 영역에 투사되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4] 본고에서 '회색'은 근원 영역으로서 낮은 채도, 중간성, 불분명함, 생기 없음, 퇴색, 잔여성 등의 감각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은 문학 텍스트 안에서 시대 인식, 공간, 인간 존재, 언어와 인식이라는 목표 영역으로 전이된다. 따라서 본고가 사용하는 '회색 은유의 체계'라는 말은 개별 작품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회색 표현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회색의 색채적 속성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에 투사되며 형성하는 의미 구조를 가리킨다.

---

3)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Zoltan Kovecses 저, 이정화 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참조.

4)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이때 회색 은유는 상징과도 구별된다. 상징이 특정 색채에 비교적 안정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라면, 본고에서 주목하는 은유는 회색의 감각적 속성이 작품 속 구체적 맥락에 따라 공간, 존재, 언어의 차원으로 이동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회색 하늘'은 시대적 권태를 드러내는 공간 은유로, '회색 청춘'은 존재의 생명력 상실을 드러내는 존재 은유로, '회색분자'는 이념적 판단과 낙인의 언어 은유로 작동한다. 본고는 이러한 전이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회색이 한국 현대문학에서 하나의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은유 체계로 기능해 왔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분석 대상은 '회색'을 중심으로 한 회색 계열 표현이다. 여기에는 '회색', '회색빛', '회색조'와 같이 색채의 시각적 속성을 직접 드러내는 표현과, '회색분자', '회색 경향', '회색지대'처럼 '회색'이 특정 명사와 결합하여 사회적·이념적 의미를 형성하는 표현이 포함된다.[5] 다만 이 두 부류는 같은 층위의 표현이 아니므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회색', '회색빛', '회색조'는 색채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회색'은 가장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색채어로서 대상의 무채색성, 중간성, 불확정성을 직접 규정하는 기능이 강하다. 이에 비해 '회색빛'은 '빛'이라는 요소로 인해 고정된 색이라기보다 대상에 스며든 분위기나 기운을 나타내며, 하늘, 공기, 황혼, 침묵 등과 결합할 때 흐림, 번짐, 잠정성, 정서적 기운을 강조한다.[6] '회색조'는 개별 사물보다 장면 전체의 낮은 채도와 침잠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반면 '회색분자', '회색 경향', '회색지대'는 색채어 자체라기보다 회색의 중간성·불확정성이 사회적 명명으로 관습화된 표현이다.[7] 이들 표현에서 회색은 실제 색채를 가리키지 않고, 이념적 중간성, 사상적 낙인, 판단 유보, 경계적 위치를 나타내는 언어적 범주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고는 '회색' 계열 표현을 색채적 표현과 관용적·은유적 결합 표현으로 나누어 살피되, 양자가

5) 색채어의 형태·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이은섭, 「'색'과 '빛' 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인문논총』 54,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5, 275-308면 참조.
6) 이은섭, 같은 논문, 275-308면.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회색분자」 항목, 검색일: 2026.05.01.

모두 회색의 중간성, 불명확성, 탈색성이라는 공통된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잿빛', '납빛', '무채색' 등은 회색과 인접한 색채 표현이지만, 본고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표현은 회색과 유사한 무채색적 의미망을 공유하지만, 각각 재, 금속, 색채 부재와 같은 별도의 물질적·상징적 근거를 지니므로 독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논의의 범위를 '회색'이라는 어휘를 직접 포함한 표현으로 한정하고, 인접 색채어와의 비교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기존 연구에서도 문학과 언어 속 색채의 의미는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현대시나 소설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의 상징성을 검토하거나, 특정 색채가 작품의 정서와 주제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8] 언어학 분야에서는 색채어의 의미 확장, 색채어 은유, '색' 계열과 '빛' 계열 표현의 형태·의미 차이를 다룬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9] 또한 최인훈의 『회색인』에 관한 연구들은 '회색'이 분단 현실과 전후 지식인의 자기 정립 문제를 드러내는 핵심 기호로 기능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10]

그러나 기존 논의는 대체로 색채 이미지 일반을 다루거나, 특정 작품 속 회색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현대문학 전반에서 회색 계열 표현이 어떤 시대적 의미를 형성해 왔는지, 또 그것이 어떤 대상과 결합하면서 공간·존재·언어의 차원에서 어떻게 은유화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즉 회색을 단순한 색채 묘사나 우울의 표지로 보지 않고, 한국 현대문학이 근대 이후의 역사적 경험과 주체의 감각 변화를 포착해 온 하나의 은유 체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

8) 박종빈, 「한국 문학에 표현된 색 이미지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 현대 시문학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3-3,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0, 63-70면.

9) 이은섭, 앞의 논문.

10) 유임하, 「분단현실과 주체의 자기정립 — 최인훈의 『회색인』」,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권성우,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현실 인식 연구」,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본고의 목적은 한국 현대문학 속 회색이 단순히 어둡고 우울한 색으로 반복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주체의 감각 변화를 드러내는 복합적 은유로 기능해 왔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로써 회색은 식민지 근대와 전후 현실, 분단과 산업화, 권력과 침묵, 후기근대적 생존과 감각의 마모를 가로지르며 한국 현대문학의 세계 인식과 주체 형성 방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색채 기호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 자료는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와 기초학문자료센터의 1950년대 한국 현대소설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회색', '회색빛' 등 회색 계열 색채 표현과, '회색분자', '회색 경향', '회색지대' 등 회색을 포함한 관용적·은유적 결합 표현으로 설정하였다. 검색된 용례 가운데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문학작품 안에서 인물의 정서, 시대 인식, 사회적 현실, 존재 조건, 언어적 판단과 관련하여 의미 확장이 확인되는 경우, 둘째, 단순한 사물 색채 묘사를 넘어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셋째, 시대별 변화나 의미 구조의 전이를 설명하는 데 대표성을 지닌 경우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회색 은유의 의미 확장을 보여 주는 문학적 산문, 수필, 비평적 산문 자료를 제한적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의복, 물건, 건축물 등의 실제 색을 단순히 지시하는 용례는 원칙적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직접색에 가까운 표현이라도 그것이 작품의 사회적 맥락이나 인물의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은유적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컨대 '회색 투피스'나 '회색 스프링'처럼 실제 색채를 가리키는 표현은 제한적으로만 언급하였고,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 '회색 청춘', '회색분자', '회색빛 침묵'처럼 추상적 대상이나 사회적 판단과 결합한 표현은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본고는 회색 계열 용례를 단순한 색채 묘사와 은유적 용례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의 한국 현대문학 작품에 나타난 회색 계열 용례를 수집하고, 이를 시대별·의미 구조별로 분석한다. 2장에서는 회색 은유의 시대별 전개 양상을 살핀다. 1930년대부터 1950

년대까지의 회색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을 드러내는 색으로, 1960-1970년대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을 드러내는 색으로,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를 나타내는 색으로,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을 표상하는 색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한국문학사의 통용 구분을 바탕으로 하되, 회색 은유의 의미 변화가 두드러지는 지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분석적 구분이라 할 수 있겠다. 3장에서는 2장의 시대별 분석을 의미 구조의 차원에서 재배열하여, 회색 은유가 공간, 존재, 언어와 인식의 차원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2. 시대별 회색 은유의 전개 양상

한국 현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은 연구자와 문학사 서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930년대 식민지 근대와 모더니즘, 해방기, 1950년대 전후문학, 1960년대의 분단·이념 문제와 도시적 감수성, 1970년대 산업화와 민중 현실,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정치적 억압, 1990년대 탈이념화와 개인의 내면화,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생존과 일상성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된다. 본고는 이러한 통용 구분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회색' 은유의 의미 변화가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접 시기를 분석적으로 묶었다.[11] 따라서 1930-1950년대 중반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이 회색의 초기 의미망을 형성한 시기로, 1960-1970년대는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이 회색 은유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 시기로, 1980-1990년대는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가 회색을 주체의 내면으로 이동시킨 시기로, 2000년대 이후는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이 회색 은유의 주요 의미로 부상한 시기로 설정한다.

---

11) 한국 현대문학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서울: 민음사, 200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서울: 민음사, 200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서울: 민음사, 1993 참조.

1) 1930-1950년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한국문학은 식민지 근대의 도시적 감각, 모더니즘적 내면화, 해방 이후의 혼란, 한국전쟁 이후의 폐허와 상실을 통과하며 전개되었다.[12] 본고는 이러한 문학사적 흐름 속에서 회색이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의 감각을 드러내는 색채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 시기의 회색은 아직 1960-1970년대처럼 이념적 중간성을 본격적으로 표상하기보다는, 근대적 주체가 경험하는 불안, 우울, 무기력, 상실감을 외부 세계와 내면의 색조로 형상화한다.

〈표 1〉 1930-1950년대 작품 속 '회색' 용례

검푸른 회색빛을 띠고 산뜻하고도 향기로운 공기가 무언중에 봄소식을 전해 주는 그 어느날 새벽이다.	강경애, 『인간문제』, 창작과 비평사,
"이 적막. 가는 날 오는 날 하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 참을 수 없어요. 미치겠어요."	이효석, 「장미 병들다」,
두뇌의 활동이 일시 멈춘 듯 전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회색의 우수에 싸여서 마치 중병을 치르고 난 환자와 같이 어슬렁 어슬렁 걷기 시작하였다.	김성한, 「전회」
건너편 능선 저쪽에 저 끝까지 지붕이 이랑을 이룬 도회의 회색. 저것이 인간 정신의 피부란 말인가? 체온이었단 말인가? 캔버스에 다시 손을 댔다 꺼멓게 칠했던 하늘 한구석을 황색으로 바꾸었다. 환한 적동(赤銅) 일색으로 되었던 육신의 그쪽 일면을 더덕더덕 칼로 긁어내고 거기다가 엷게 파랑을 칠했다. 회색 폭포도 노랑으로 고쳤다.	장용학, 「비인탄생」
얼마 안있더니 회색 하늘을 등진 희디흰 서녘 산마루를 넘어 한 대의 수송기가 그 육중한 자태를 드러냈다.	선우휘, 「단독강화」
하늘도 산도 들도 눈에 띄는 모든 것 꽃을 보아도 회색이었다. 며칠 후 이북으로 갔다던 연호가 머리를 길게 늘이고 P고을로 들어오자 먼저 현을 찾았다.	선우휘, 「불꽃」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냐, 좀 회색 경향이야. 몇 놈 끼여들어 있는 게 아냐?"	선우휘, 「깃발없는 기수」
그러나 노인은 벌써 거기에서 나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주방의 높은 창으로 들어오는 회색의 외광이 노인의 하얗게 바랜 얼굴과 머리털을 비춰내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노인의 회색 얼굴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최상규, 「악령의 늪」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선 채, 회색 장막을 드리운 듯, 비에 뿌예진 창밖을 내다보며 망설이고 있는 원구의 귀에 고집 피우지 말고 자고 가라는 동욱의 말에 뒤이어, 이런 비에는 앞 도랑에 물이 불어서 못 건너십니다, 하는 동옥의 음성이 들린 것이었다.	손창섭, 「비오는 날」
휘황히 빛나는 형광등 밑에 앉아서 그는 진회색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보이지 않는 눈을 손으로 가리며 그는 어둠과 더불어 흔들리고 있는 자기	류주현, 「장씨 일가」

1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자신의 영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그와 마주서 본다.	
햇볕이 점점 창문가에서 스러지고 잔광(殘光)이 높은 축대 위 옆집 담 너머로 뚝 떨어지자 회색빛 그늘이 나지막한 이 집 마당으로 넘어지듯 내려섰다.	오상원, 「모반」
반생을 두고 더듬어 온 내 인생의 길은 비내리는 스산한 회색 풍경 속에 가늘게 뻗어있었기 때문입니다. … 빗속에 바라보이는 거리나 전원의 풍경은 견딜 수 없이 무거운 회색 바탕이었습니다. 무한히 전개된 짙은 회색을 배경으로 냉랭한 가을비가 뿌리는 속에 조그맣게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더구나 'ㅎ' 발음이며 b와 d를 구별 못 하는 내 두뇌의 치매성이나 가을비 내리는 음산한 풍경이 회색 바탕으로 끝없이 전개된 내 인생의 정신 풍토 위에는 귀양의 투명한 미소를 충분히 형체화시킬 수 있는 운명적인 필연성조차 내재해있는 것입니다. 빨간 리본의 회색 모자를 쓴 소녀의 얼굴에 나타난 투명한 미소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스산한 가을비 뿌리는 무한한 회색 바탕의 내 내면세계에는 귀양의 투명한 미소만이 단 하나의 태양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손창섭, 「미소」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 모든 것은 끝난 것이다.	오상원, 「유예」
회색 청춘. 아니 완전히 블랭크 그대로인 청춘,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그 블랭크.	이범선, 「피해자」
해가 서산에 뚝 떨어지고 잔광 殘光이 산마루에 붉은 놀을 이루었다. 곧 연한 핏빛을 남기며 사라지고 갑자기 이쪽 산 밑으로 회색빛 황혼이 내려앉았다.	오상원, 「현실」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 "검푸른 회색빛을 띠고 산뜻하고도 향기로운 공기"는 회색이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 지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회색빛은 새벽의 공기와 봄소식을 함께 전달하며,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경계적 시간의 색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성은 이후 회색 은유가 지니게 될 불확정성과도 연결된다. 회색은 하나의 명확한 색조로 고정되지 않고, 새벽·공기·계절의 변화처럼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에서 "허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청춘의 훼손을 압축하여 보여 준다. 주인공 남죽은 생기와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지만, 검열, 빈곤, 예술적 좌절, 도시적 욕망 속에서 점차 병들어 간다. 이때 회색 하늘은 단순한 기상 묘사가 아니라, 변화 없는 시간과 탈출 불가능한 현실을 상징한다. 하늘은 본래 열림과 가능성을 환기하는 공간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반복적이고 답답한 회색으로 제시되며 인물의 정신적 고통을 드러낸다.

전후문학으로 넘어가면 회색은 상실과 폐허의 색으로 짙어진다. 한국전쟁 이후의 문학은 전쟁 체험, 폐허 의식, 인간성의 훼손, 실존적 불안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으며,[13] 이러한 전후문학의 정조는 회색 은유가 상실과 무력감의 색으로 기능하는 배경이 된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그 누더기는 회색 말고는 어떤 빛도 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회색이 빈곤과 훼손, 빛을 잃은 존재의 상태를 나타냄을 보여 준다. 김성한의 「전회」에서 인물은 "전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회색의 우수"에 싸여 걷는다. 여기서 회색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라 시간 감각의 정지, 역사적 방향성의 상실, 전후 인간의 무력감을 나타낸다. 과거와 미래가 모두 차단된 상태에서 회색은 삶 전체를 둘러싼 정신적 안개를 의미한다.

장용학의 「비인탄생」에서 "도회의 회색"은 인간 정신의 피부와 체온으로 비유된다. 이는 회색이 외부 풍경의 색을 넘어 인간 정신의 표면과 생리적 감각으로까지 확장되는 사례이다. 또한 회색 폭포를 다른 색으로 고치는 장면은 회색이 세계의 무기력하고 침체된 바탕으로 인식되면서도, 예술적 행위를 통해 변형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됨을 보여 준다. 선우휘의 「단독강화」와 「불꽃」에서도 회색 하늘, 회색으로 보이는 모든 사물은 전쟁과 이념 대립 속에서 세계 전체가 생명력을 잃은 듯한 감각을 드러낸다. 특히 「불꽃」의 "하늘도 산도 들도 눈에 띄는 모든 것 꽃을 보아도 회색이었다"는 표현은 회색이 특정 사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인식 전체를 장악하는 색으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이 시기 회색은 인물의 신체와 얼굴과도 결합되는데, 최상규의 「악령의 늪」에서 "회색의 외광"과 "노인의 회색 얼굴"은 노쇠, 생기 상실, 죽음의 기운을 환기한다. 손창섭의 「비오는 날」에서 "회색 장막"은 비에 가려진 세계의 폐쇄성을 나타내며, 류주현의 「장씨 일가」에서 "진회색 어둠"은 인물이 마주하는 자기 자신의 흔들리는 영상을 감싸는 내면적 어둠인 것이다.

---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후문학」 항목. 검색일: 2026.05.01.

손창섭의 「미소」는 이 시기 회색 은유가 내면세계 전체의 색조로 확장되는 사례이다.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비내리는 스산한 회색 풍경", "견딜 수 없이 무거운 회색 바탕", "운명적인 색조"로 규정한다. 여기서 회색은 단순한 배경색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정신 풍토이다. 회색은 비, 낙엽, 퇴색한 옷, 뚫어진 구두, 가을 풍경과 결합하면서 빈곤하고 스산한 삶의 궤적을 형성한다. 반면 "빨간 리본의 회색 모자"와 "투명한 미소"는 이 무거운 회색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기억의 잔상으로 나타난다.

오상원의 「유예」에서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 간다"는 표현은 순수하거나 밝은 가능성이 회색을 거쳐 어둠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범선의 「피해자」에서 "회색 청춘"은 다시는 채울 수 없는 공백으로서의 청춘을 가리킨다. 이는 청춘이 생명력과 가능성의 시기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 이후 회복될 수 없는 결핍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의 회색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을 감각적으로 기록하는 색채이다. 이 시기의 회색은 아직 이념적 중립이나 타협의 의미보다, 생명력의 훼손, 세계 인식의 흐림, 시간 감각의 정지, 내면의 우울을 나타낸다. 회색은 하늘과 공기, 도시와 풍경, 얼굴과 청춘, 인생의 내부에 부착되며 근대 이후 주체가 경험한 불안정하고 침체된 현실 감각을 드러낸다.

한편 1950년대 후반에 이르면 회색은 전후의 우울과 상실을 넘어 이념적 의심의 언어로도 나타난다. 선우휘의 「깃발 없는 기수」에서 "회색 경향"이라는 표현은 특정 인물이 어느 한쪽 이념에 분명히 귀속되지 않는 존재로 의심받는 상황을 보여 준다. 여기서 회색은 단순한 색채 묘사가 아니라 사상적 낙인의 언어이다. 이는 1960-1970년대에 본격화될 이념적 중간성의 회색을 예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 1960-1970년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

1960-1970년대의 회색은 이전 시기의 권태와 상실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명확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1960년대 문학은 4·19 이후의 현실 인식, 분단 체제, 전후 지식인의 자기 정립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1970년대 문학은 산업화와 도시화, 노동 현실, 도시 빈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14] 이 시기 회색은 한편으로는 분단과 냉전의 이념적 구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체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만들어 낸 생활세계의 축소와 균열을 드러내는 색채가 된다.

〈표 2〉 1960-1970년대 작품 속 '회색' 용례

그 누더기는 회색 말고는 어떤 빛도 내지 않았다.	최인훈, 『광장』, 1960
『회색인』	최인훈, 『회색인』,1963-1964
영달이는 비각 처마 끝에 회색으로 퇴색한 채 매어져 있는 새끼줄을 끊어 냈다.	황석영, 『삼포가는 길』, 1973
밖에서 회색에 싸인 축소된 집과 축소된 식구들을 들여다보고 늙은 수부를 생각했다. 바람부는 회색의 지평선만 남는다.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 ... 회색에 감싸인 집과 식구들은 축소된 모습을 나에게 드러냈다. .... 하늘까지 회색이다."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978

이념적 회색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인훈의 『회색인』을 들 수 있다. 『회색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 작품을 분단 현실과 전후 지식인의 자기 정립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해 왔다.[15] 『회색인』은 어느 한쪽 이념에도 온전히 귀속되지 못하는 전후 지식인의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이때 회색은 단순한 중립이나 타협의 색이 아니다. 그것은 분단 현실과 냉전적 사고 속에서 자기 언어와 자기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는 주체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14) 권영민, 앞의 책.

15) 유임하, 「분단현실과 주체의 자기정립 — 최인훈의 『회색인』」, 『한국문학연구』 24, 2001, 305-330면; 권성우,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현실 인식 연구」, 『어문학』 74, 2001;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0, 1997.

이러한 이념적 회색성은 최인훈의 『광장』에서도 확인된다. 『광장』의 인물은 남과 북 어느 체제에서도 온전한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며, 광장과 밀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모색한다. "그 누더기는 회색 말고는 어떤 빛도 내지 않았다"는 표현은 직접적인 이념어는 아니지만, 작품 전체의 분단 서사 속에서 빛을 잃은 존재와 훼손된 현실의 감각을 드러낸다. 따라서 1960년대의 회색은 전후의 상실을 계승하면서도, 분단 체제 속에서 주체가 어느 한쪽으로도 완전히 귀속되지 못하는 이념적 미결정성의 색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면 회색은 산업화된 생활세계의 색으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문학에서 노동자, 도시 빈민, 철거민, 소외계층의 삶을 중요한 문제로 부상시켰다.[16]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 "회색으로 퇴색한" 새끼줄은 오래되고 낡은 것, 더 이상 본래의 생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물의 상태를 나타낸다. 퇴색한 회색은 사라져 가는 농촌적 삶, 개발과 이동 속에서 낡아 가는 세계의 흔적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회색은 극적인 정치 언어라기보다, 떠돌이 인물들이 마주하는 쇠락한 현실과 생활의 피로를 나타내는 물질적 색채로 작용한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회색은 이 시기 회색 은유의 핵심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도시 빈민·노동자의 소외를 다룬 대표적 작품으로 논의되어 왔다.[17] 작품 속 인물은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라고 말하며, 회색에 싸인 집과 식구들이 축소된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또한 "하늘까지 회색이다"라는 표현은 회색이 특정 사물이나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를 뒤덮는 색임을 보여 준다. 여기서 회색은 산업화의 성취나 성장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축소되고 소외된 가족과 생활의 색이다. 조세희의 회색은 특히 "축소"의 이미지와 결합한다. 회색에 싸인 집과 식구들은 확대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줄어든다. 이는 산업화가 약속한 발전과 성장의 담론과 정반

16) 권영민, 앞의 책.
17) 배경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인문연구』 67,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20면.

대의 감각이다. 산업화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확장과 발전의 언어로 설명되었지만, 빈민과 노동자의 생활세계에서는 오히려 공간과 가능성의 축소, 가족의 해체, 인간 존엄의 탈색으로 경험되었다.

따라서 1960-1970년대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을 함께 드러낸다. 『회색인』의 회색이 분단과 냉전의 흑백 구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체의 색이라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회색은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생활 전체가 생동감과 전망을 잃어 가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1980-1990년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외적 억압뿐 아니라, 그 억압이 개인의 감각과 언어, 관계 속으로 스며드는 양상을 드러낸다. 1980년대 문학은 정치적 억압, 민족·민중문학, 노동 현실, 민주화 운동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며, 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주의 확산과 탈이념화 속에서 민중문학론의 퇴조, 후일담, 개인의 내면화가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18] 이 시기의 회색은 차가운 도시, 낮게 내려앉은 하늘, 침묵, 회색분자, 회색 담, 회색 집단, 회색 건물 등과 결합한다. 이를 통해 회색은 정치적 억압과 이념적 경계, 제도적 무력감, 내면화된 침묵의 정서를 표현한다.

〈표 3〉 1980-1990년대 작품 속 '회색' 용례

하늘은 손에 잡힐 듯 내려와 있었으며 도시를 휩쓸고 있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운 회색이었다.	송재찬, 『작은 그림책』, 1981.
아침에 "눈이 왔나." 하고 창을 열면 도시는 회색 물감에 젖어 있는 듯 뿌옇게 보였다.	송재찬, 『작은 그림책』, 1981.
회색 하늘이 바로 지붕 위까지 내려와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규,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1981.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회색분자라 일컫는구나.	김하기, 『완전한 만남』, 1990.
미리는 갑자기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	구인환, 『어떤 서울 사람』, 1992.

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중문학」 항목, 검색일: 2026.05.01.

그 동안 회색 담과 같은 긴 투병 생활을 해 왔으나 이제는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한국수필진흥연구회, 『수필공원 94 봄』, 1994.
잠시 회색빛 침묵이 둘 사이에 머물렀다.	유기성, 『아름다운 그 시작』, 1994.
이 같은 허무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해서 세상이 항상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김정일,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 1994.
이른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쏘옥 들지 않는 수많은 회색분자들을 총칭하여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가.	정혜진, 『배낭 여행』, 1994.
"그런 응달에서 볼이 튼 어린아이들이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내 목을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벗어, 멋진 나무젓가락 콧수염을 단 회색 눈사람의 목에 감아주었다."	최윤, 「회색 눈사람」, 1992.
녹색 베란다를 빼곤 모두 회색뿐이어서 어딘지 관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6층 건물이었습니다.	구효서, 『낯선 여름』, 1996.

송재찬의 『작은 그림책』에서 회색은 도시 전체를 감싸는 차가운 감각으로 나타난다. "도시를 휩쓸고 있는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운 회색"이라는 표현에서 회색은 시각적 색채를 넘어 촉각적 감각으로 확장된다. 또한 "도시는 회색 물감에 젖어 있는 듯 뿌옇게 보였다"는 문장은 회색이 세계의 윤곽을 흐리고, 도시 전체를 생기 없는 표면으로 만드는 색임을 보여 준다. 박상규의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에서도 "회색 하늘"은 지붕 위까지 내려와 흩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하늘이 낮게 내려온다는 감각은 인물들이 처한 세계의 답답함과 압박감을 드러낸다.

이 시기 회색은 이념적 경계와 자기 규정의 문제로도 나타난다.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에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회색분자라 일컫는구나"라는 표현은 회색이 정치적·사상적 위치를 명명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혜진의 『배낭 여행』에서도 운동권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회색분자"라고 부른다는 진술이 나타난다. 여기서 회색은 1960-1970년대의 "회색 경향"과 이어지지만, 1980-1990년대에는 그것이 운동권 내부의 배제와 명명 방식으로 확장된다. 회색은 단순한 중간성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 공동체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존재에게 붙는 낙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회색은 침묵과 내면적 단절의 색으로도 나타난다. 유기성의 『아름다

운 그 시작』에서 “회색빛 침묵”이 둘 사이에 머문다는 표현은 회색이 더 이상 외부 풍경의 색에 머물지 않고 관계와 대화의 공백을 나타내는 정서적 색채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회색빛 침묵”은 말이 부재한 상태이면서 동시에 말해지지 못한 감정, 관계의 거리감, 소통의 정지를 의미한다. 한국수필진흥연구회의 『수필공원』에 나타나는 “회색 담과 같은 긴 투병생활” 역시 회색이 지속적 고통과 단절, 답답한 시간을 비유하는 색임을 보여 준다.

최윤의 「회색 눈사람」은 이 시기 회색 은유의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역사적 기억, 여성 주체, 번역과 증언의 문제와 관련하여 재해석되어 왔다.[19] 작품 속 아이들은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눈사람을 만든다. 눈은 본래 흰색과 순수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재와 흙이 섞이며 회색으로 변한다. 이 회색 눈사람은 유신 시대의 가난, 억압, 침묵된 기억을 품은 존재이다. 화자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회색 눈사람에게 감아 주는 장면은, 회색으로 표현된 상처 입은 존재를 향한 윤리적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색 눈사람」의 회색은 이념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가난한 삶과 역사적 상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주체의 내면적 감각을 드러낸다.

1990년대의 회색은 대중, 건물, 세상 전체에 대한 인식으로도 확장된다. 구효서의 『낯선 여름』에서 “녹색 베란다를 빼곤 모두 회색뿐”인 건물은 관료적 분위기를 풍기며, 여기서 회색은 제도화된 공간의 무표정함, 획일성, 생기 부족을 나타낸다.

따라서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를 드러내는 색으로 기능한다. 회색은 도시와 하늘의 차가운 분위기에서 출발하여, 회색분자라는 이념적 낙인, 회색빛 침묵이라는 관계의 단절, 회색 눈사람이라는 기억과 윤리의 상징으로 확장된다. 이 시기 회색은 외부 현실의 묘사에 머물지 않고, 권력과 이념, 침묵과 기억이 개인의 내면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 준다.

---

19) 이한나, 「‘젠더번역’ 관점에서의 최윤 소설 — 최윤, 「회색 눈사람」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유승희, 「최윤 소설의 역사기억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4) 2000년대 이후: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거대한 이념 대립이나 명시적 정치 억압보다, 일상적 생존과 감각의 마모를 드러내는 색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 경쟁의 일상화, 청년 세대의 생존 문제, 도시적 피로의 심화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20] 이 시기의 회색은 아파트, 거리, 공간, 숲, 강물, 논바닥, 세면도구, 냉장고, 돌가루, 인간의 몸과 결합한다. 회색은 더 이상 특별한 비극의 색이라기보다, 현대인의 생활세계 전반에 스며든 피로와 소진, 환경적 불안, 기억의 불투명성, 인간성의 탈색을 나타내는 색채가 된다.

〈표 4〉 2000년대 이후 작품 속 '회색' 용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코트 위로 리트머스지만하게 삐져나온 하늘은 신희의 목소리를 내 청각보다 먼저 접수했는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두운 회색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김현영, 『냉장고』, 창작과비평사, 2000.
거리는 저녁 무렵처럼 음울한 회색조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강, 『그대의 차가운 손』, 문학과지성사, 2002.
죽어 있던 대지, 회색의 비탄에 싸여 있던 숲은 그 푸른 잎들로 하여 비로소 강렬한 삶의 지대로 변한다. 침묵하는 회색의 공간으로 빗발이 칠 때, 우리는 문득 고독한 생과 대면하게 된다.	이어령, 『차 한 잔의 사상』, 문학사상사, 2003.
11월이라 안개가 많이 꼈었는데, 강물을 바라보노라면 영혼의 회색 지대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문혜원, 『문학의 영감이 흐르는 여울: 문학평론가 문혜원의 작가 탐험 대담집』, 문학사상사, 2003.
아파트 주변에는 야트막한 산도, 아름드리 나무도, 구멍가게도 없고 먼지를 들쓴 회색 논바닥만 펼쳐져 있었다. 일렬로 서 있는 철제선반 위에 이불과 수건, 각종 세면도구와 청소도구가 가득했고 그것들은 온통 회색이었다.	강영숙, 『날마다 축제』, ㈜창비, 2004.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	김동식, 「회색 인간」, 2017.

20)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179-212면.

김현영의 『냉장고』에서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코트 위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운 회색빛”으로 물든다. 여기서 회색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인 현대적 생활환경 속에서 축소된 하늘의 색이다. 한강의 『그대의 차가운 손』에서 “거리는 저녁 무렵처럼 음울한 회색조로 가라앉아 있었다”는 표현은 회색이 도시의 정서 전체를 낮고 무겁게 만드는 색으로 기능함을 보여 준다. 이 회색조는 격렬한 비극이라기보다 일상의 표면에 내려앉은 침잠과 정서적 냉기를 드러낸다.

이어령과 문혜원의 산문에서도 회색은 고독, 침묵, 내면의 불확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 자료는 문학작품의 핵심 분석이라기보다, 2000년대 이후 회색 은유가 문학적 산문과 비평적 글쓰기 속에서도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보조 용례로 볼 수 있다.

강영숙의 『날마다 축제』에서 회색은 현대적 생활세계의 피로와 획일성을 나타낸다. 아파트 주변에 펼쳐진 “먼지를 들쓴 회색 논바닥”은 자연의 공간조차 도시적 먼지와 회색성에 잠식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철제선반 위의 이불, 수건, 세면도구, 청소도구가 “온통 회색”이라는 표현은 회색이 생활사물 전체에 부착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회색은 더 이상 거대한 도시나 역사적 사건의 색이 아니라, 일상적 사물과 생존의 도구들에 스며든 무채색의 질감이다.

김동식의 「회색 인간」은 2000년대 이후 회색 은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반전시킨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는 문장에서 회색은 돌가루와 노동, 비인간화된 환경이 인간에게 덧씌운 색이다. 그러나 작품은 사람들이 더 이상 회색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외부의 회색 조건이 인간성 전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회색은 비인간화의 표지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성 회복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역설적 은유인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는 색으로 정리할 수 있다. 회색은 고층 아파트, 거리, 회색공간, 먼지를

뒤집어쓴 논바닥, 생활 도구, 돌가루 묻은 인간의 몸에 부착되며 현대인의 삶이 선명한 의미나 생동감으로 조직되기보다 흐릿하고 피로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시기의 회색은 우울의 색을 넘어, 후기근대적 생활세계의 피로, 생태적 불안, 일상적 생존, 인간성의 탈색과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색채로 작용한다.

3. 회색 은유의 의미 구조와 전이 양상

2장이 회색 은유의 의미를 시대별로 배열하였다면, 3장은 그 의미가 어떤 방향으로 전이되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수집된 용례를 보면 회색은 처음에는 하늘, 공기, 황혼, 장막, 도시와 같은 외부 풍경에 주로 부착된다. 이 경우 회색은 인물이 놓인 시대적 분위기와 세계 인식의 흐림을 드러낸다. 그러나 회색은 점차 집, 생활, 얼굴, 청춘, 눈사람, 인간과 결합하면서 외부 세계의 색에서 존재의 상태를 규정하는 색으로 이동한다. 나아가 회색 경향, 회색분자, 회색빛 침묵, 회색지대와 같은 표현에서는 회색이 더 이상 시각적 색채가 아니라 사상적 낙인, 발화의 정지, 판단 유보, 인식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범주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회색 은유가 단순히 시대별로 다른 의미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풍경에서 생활세계로, 생활세계에서 인간 존재로, 인간 존재에서 언어와 인식의 차원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 준다. 본고가 말하는 회색 은유의 '확장'은 바로 이 전이 과정을 가리킨다.[21] 즉 회색은 처음에는 세계를 물들이는 색으로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인간을 탈색시키고, 마침내 인간이 세계와 타인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기호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회색 은유를 시대 순서가 아닌 의미 구조에 따라 세 부분으로 분류하여 재배열해 보고자 한다. 첫째, 회색이 공간을 물들이는 방

21) 은유를 경험 영역 간 의미 전이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Zoltan Kovecses 저, 이정화 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참조.

식, 둘째, 회색이 인간 존재를 무채색화하는 방식, 셋째, 회색이 언어와 인식의 불확정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회색은 단순한 색채 묘사가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에서 세계·존재·언어의 선명성이 점차 약화되고 불투명해지는 과정을 드러내는 핵심 은유임을 확인한다.

1) 공간의 회색화: 외부 풍경에서 생활세계로

수집된 용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회색의 결합 대상은 공간이다. 따라서 회색 은유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어떤 공간에 부착되는가에서 확인된다. 문학작품 속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의 감각, 시대 인식,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의미 장치이다. 문학작품을 공간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일은 작품 속 공간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확장하는가를 탐구하는 작업이다.[2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대문학의 회색은 특정 공간의 역사적·사회적·정서적 성격을 드러내는 색채로 기능한다. 수집 용례에서 회색은 하늘, 공기, 장막, 황혼, 도회, 도시, 집, 공간, 논바닥, 생활 도구 등과 결합하면서 인물이 놓인 세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회색은 단순히 배경의 색을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전체가 생동감과 방향성을 잃어 가는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초기 용례에서 회색은 주로 하늘, 공기, 장막, 황혼과 같은 외부 풍경에 부착된다.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나타나는 “검푸른 회색빛”의 공기,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에 나타나는 “허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 손창섭의 「비오는 날」에 나타나는 “회색 장막”, 오상원의 「현실」에 나타나는 “회색빛 황혼” 등은 모두 회색이 외부 세계의 분위기를 규정하는 색으로 기능하는 사례이다. 이들 표현에서 회색은 특정 사물의 고정된 색이라기보다, 인물이 마주한 세계 전체에 스며든 흐림, 답답함, 반복성, 침잠의 감각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회색이 ‘보이는 풍경’의 색이면서 동시에 ‘느껴지는 세계’의 색이라는 점이다. “회색 하늘”이나 “회색빛 황혼”은 하늘과 황

22)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7-2, 2008, 7-36면.

혼의 실제 색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단순한 배경 묘사에 머물지 않는다. 회색은 개방되어야 할 하늘을 닫힌 풍경으로 바꾸고, 하루의 끝을 알리는 황혼을 침체와 소멸의 분위기로 전환한다. 따라서 회색은 외부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현실 인식과 정서 상태를 드러내는 공간 은유로 작동한다.

이러한 회색 공간은 도시와 도회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장용학의 「비인탄생」에서 "도회의 회색"은 도시 전체가 지닌 무표정하고 비생명적인 감각을 드러낸다. 여기서 회색은 개별 건물이나 거리의 색이 아니라 도시라는 근대적 공간의 정신적 표면을 가리킨다. 송재찬의 『작은 그림책』에서 "칼날처럼 차가운 회색"의 바람과 "회색 물감에 젖어 있는 듯"한 도시는 회색이 더 이상 시각적 색채에만 머물지 않고 촉각적·정서적 감각으로 확장됨을 보여 준다. 회색 도시는 뿌옇고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이며, 그 안의 인물들은 세계의 윤곽이 흐려진 상태를 경험한다.

1970년대 이후 회색은 도시 전체의 색에서 생활세계의 색으로 이동한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라는 표현은 이 전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여기서 회색은 하늘이나 거리의 색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추상적이고 총체적인 영역에 부착된다. 또한 "회색에 감싸인 집과 식구들", "하늘까지 회색이다"라는 표현에서 회색은 집, 가족, 하늘을 동시에 감싸며 생활세계 전체의 위축과 전망 부재를 드러낸다. 회색은 이제 외부 풍경의 색을 넘어, 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 자체를 규정하는 색이 된다.

2000년대 이후의 용례에서는 회색 공간이 더욱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으로 내려온다. 김현영의 『냉장고』에서 고층 아파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운 회색빛"으로 물들고, 한강의 『그대의 차가운 손』에서 거리는 "음울한 회색조"로 가라앉으며, 강영숙의 『날마다 축제』에서는 "먼지를 들쓴 회색 논바닥"과 "온통 회색"인 생활도구들이 제시된다. 이때 회색은 거대한 도시나 역사적 풍경에만 머물지 않고, 논바닥, 세면도구, 청소도구, 생활 사물에까지 스며든다.

이처럼 공간의 회색화는 거대한 외부 풍경에서 출발하여 생활세계와 사물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회색은 하늘과 공기, 도회와 도시를 물들이는 색이면서 동시에 집, 식구, 거리, 논바닥, 생활도구에 스며드는 색인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회색화란 단순히 공간이 회색으로 묘사되는 현상이 아니라,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가 점차 생동감과 개방성을 잃고 흐릿하고 폐쇄적인 조건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드러내는 은유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2) 존재의 무채색화: 얼굴·청춘·인간의 탈색

회색 은유의 두 번째 전이 양상은 인간 존재의 무채색화이다. 앞 절에서 회색이 공간을 물들이는 색으로 나타났다면, 이 절에서 회색은 인간의 얼굴, 청춘, 몸, 기억, 인간성 자체에 부착된다. 이때 회색은 단순한 외양의 색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처한 조건과 내면의 상태를 압축하는 은유의 기능을 한다. 회색으로 표현된 존재는 대체로 생명력, 선명성, 가능성, 주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나타난다. 현대문학에서 소외와 주체성의 손상은 전후문학, 산업화 문학, 도시문학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며, 회색 은유는 이러한 존재론적 손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23]

존재의 무채색화는 먼저 신체와 외양의 차원에서 확인된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회색 말고는 어떤 빛도 내지” 않는 누더기는 훼손되고 빛을 잃은 존재의 물질적 표지로 기능한다. 최상규의 「악령의 늪」에 나타나는 “노인의 회색 얼굴” 역시 회색이 신체의 생기 상실과 결합하는 사례이다. 이들 표현에서 회색은 단순한 옷감이나 얼굴빛의 묘사가 아니라, 존재가 이미 닳고 바래고 소진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회색은 신체적 외양을 넘어 생애의 시간에도 부착된다. 이범선의 「피해자」에서 “회색 청춘”이라는 표현은 청춘이 더 이상 생동감과 가능성의 시간이 아니라 공백과 훼손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청춘’은 일반적으로 푸름, 생명력, 미래 가능성을 환기하지만, 여기에 회색이 결합하면서 청

23) 배경열, 앞의 논문.

춘은 탈색되고 비어 있는 시간으로 전환된다. 이때 회색은 젊음의 표면에 덧씌워진 색이 아니라, 청춘이라는 시간 자체가 상실과 결핍의 조건으로 바뀌었음을 드러내는 존재 은유이다.

손창섭의 「미소」에서 회색은 한 개인의 내면세계 전체를 규정하는 색으로 나타난다. 작품 속 화자는 자신의 인생을 "비내리는 스산한 회색 풍경", "무거운 회색 바탕", "운명적인 색조"로 표현한다. 여기서 회색은 외부 풍경과 내면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회색은 인물 바깥의 배경색이면서 동시에 인물의 삶 전체를 구성하는 바탕색이다. 따라서 회색은 한 인간의 삶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감각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존재론적 색채로 기능한다.

최윤의 「회색 눈사람」에서는 회색이 인간 존재의 상처와 기억을 우회적으로 형상화한다. "재와 흙으로 범벅이 된 회색 눈"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은 본래 흰색이어야 할 눈이 더럽혀지고 섞이고 바랜 상태를 보여 준다. 여기서 회색 눈사람은 실제 인간은 아니지만, 상처 입고 방치된 인간 존재를 대신하는 형상이다. 중요한 것은 회색이 순수한 흰색의 훼손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훼손된 존재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싸는 윤리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회색은 인간성의 상실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로도 작동한다.

김동식의 「회색 인간」은 존재의 무채색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 작품에서 회색은 돌가루, 노동, 비인간화된 환경이 인간에게 덧씌운 색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는 문장은 회색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성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 회색은 인간을 탈색시키는 외부 조건이지만, 동시에 그 조건을 넘어서는 인간의 잔여적 생명력을 드러내는 역설적 기호가 된다.

이처럼 존재의 무채색화는 회색이 외부 공간에서 인간 존재의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회색은 누더기와 얼굴에 부착되어 신체의 훼손과 생기 상실을 드러내고, 청춘에 부착되어 생애의 가능성이 공백으로 바뀐 상태를 보여 주며, 눈사람과 인간에 부착되어 상처 입은 존재와 탈색된 인간성의 문제

를 형상화한다. 따라서 회색은 단순히 인간을 어둡고 우울하게 묘사하는 색이 아니라, 근대 이후 문학 속 인물들이 경험한 존재의 손상, 주체성의 약화, 인간성의 탈색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은유라 할 수 있다.

3) 언어와 인식의 불확정성: 이념적 낙인에서 침묵과 경계지대로

회색 은유의 마지막 전이 양상은 언어와 인식의 차원에서 확인된다. 앞선 절들이 회색이 공간과 존재에 부착되는 방식을 살폈다면, 이 절에서는 회색이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명명하고 판단하는 언어적 범주로 작동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이 경우 회색은 더 이상 단순한 시각적 색채가 아니다. 회색은 사상적 불분명성, 판단의 유보, 발화의 정지, 인식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는 개념적 기호로 전환된다. 이처럼 회색은 색채 묘사에서 출발하지만, 문학 텍스트 안에서는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고 타인을 규정하며 자기 내면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전이는 먼저 이념적 명명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우휘의 「깃발없는 기수」에 등장하는 "회색 경향"은 회색이 사상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사례이다. 김하기의 『완전한 만남』과 정혜진의 『배낭 여행』에 나타나는 "회색분자" 역시 같은 계열에 놓인다. 여기서 회색은 중립성이나 균형의 긍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회색은 어느 한쪽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존재를 의심하고 배제하는 명명 방식으로 기능한다. 즉 회색은 이념적 흑백 구도 안에서 '불분명한 자'를 지칭하는 낙인의 언어가 된다.

회색은 이어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김성한의 「전회」에서 "전후도 과거도 미래도 없는 회색의 우수"는 시간의 방향성과 구분이 사라진 인식 상태를 나타낸다. 김정일의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에 나타나는 "세상이 항상 회색빛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구인환의 『어떤 서울 사람』에 나타나는 "세상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 같았다"는 표현 역시 회색이 외부 세계의 실제 색이라기보다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인식 상태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회색은 객관적 풍경보다 인식의 흐림, 판단의 불안정성, 삶에 대한 부정적 감각을 드러낸다.

또한 회색은 발화의 정지와 관계의 단절을 표현한다. 유기성의 『아름다운 그 시작』에서 "회색빛 침묵"은 회색이 말의 부재와 결합한 사례이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말해지지 못한 감정과 해소되지 않은 거리감을 포함한다. 여기에 회색빛이 더해지면서 침묵은 차갑고 불투명한 정서적 공간으로 변한다. 한국수필진흥연구회의 『수필공원 94 봄』에 나타나는 "회색 담과 같은 긴 투병생활" 역시 회색이 차단, 지속, 고립의 감각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용된 사례이다.

회색은 나아가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집단이나 내면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된다. 문혜원의 작가 대담집에 나타나는 "영혼의 회색지대"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내면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 표현에서 회색은 특정 이념이나 감정으로 단정할 수 없는 상태, 즉 흑백의 구분이 작동하지 않는 경계적 영역을 나타낸다. 회색지대는 판단이 유예되는 곳이자, 의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언어와 인식의 차원에서 회색은 색채 묘사의 범위를 넘어선다. "회색 경향"과 "회색분자"에서 회색은 이념적 낙인의 언어로 작동하고, "회색의 우수"와 "회색빛으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인식의 흐림과 시간 감각의 상실을 나타내며, "회색빛 침묵"과 "회색지대"에서는 말해지지 못한 감정, 판단 유보, 경계적 내면을 드러낸다. 이처럼 회색은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색에서 출발하여, 인간이 세계와 타인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언어적 기호로 확장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회색 은유의 의미 구조는 공간, 존재, 언어와 인식이라는 세 층위로 전이된다. 회색은 먼저 하늘, 도시, 집, 생활도구와 결합하며 공간을 물들이고, 다음으로 얼굴, 청춘, 눈사람, 인간과 결합하며 존재를 무채색화한다. 나아가 회색은 회색분자, 회색빛 침묵, 회색지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인간의 판단과 발화, 인식의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기호로 확장된다. 따라서 한국 현대문학에서 회색은 단순한 색채 묘사가 아니라, 세계의

흐림, 존재의 탈색, 언어와 인식의 불확정성을 연결하는 구조화된 은유 체계로 기능한다.

4. 결론

본고는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회색'의 용례를 중심으로, 회색이 단순한 색채 묘사를 넘어 시대 인식과 주체의 내면,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은유적 기호로 기능해 왔음을 분석하였다. 회색은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놓인 중간색으로서 중립성, 모호성, 불확정성을 지니는 동시에, 무채색적 성격으로 인해 침체, 우울, 소외, 감각의 마모를 환기하며, 이러한 회색의 색채적 특성은 한국 현대문학 속에서 각 시대의 역사적 조건과 결합하며 다양한 의미망을 형성하였다.

2장에서는 회색 은유의 시대별 전개 양상을 검토하였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회색은 식민지 근대의 권태와 전후 상실을 드러내는 색채로 나타났다. 강경애, 이효석, 손창섭, 오상원, 이범선 등의 작품에서 회색은 하늘, 공기, 장막, 황혼, 청춘, 인생의 풍경과 결합하며 불안정한 시대 감각과 훼손된 주체의 내면을 형상화하였다. 이 시기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보다는 생명력의 약화, 세계 인식의 흐림, 시간 감각의 정지, 전후 인간의 상실감을 나타내는 색으로 기능하였다.

1960-1970년대의 회색은 보다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에서 회색은 분단과 냉전의 흑백 구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체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또한 황석영과 조세희의 작품에서 회색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낳은 퇴색, 빈곤, 생활세계의 축소를 보여 준다. 특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우리의 생활은 회색이다"라는 진술은 산업화가 약속한 성장의 이면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축소되고 탈색되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이 시기의 회색은 이념적 중간성과 산업화의 균열을 동시에 드러내는 색채라 할 수 있다.

1980-1990년대의 회색은 권력의 내면화와 침묵의 정서를 나타낸다. 이 시기 회색은 차가운 도시, 낮게 내려앉은 하늘, 회색분자, 회색빛 침묵, 회색 눈사람, 회색 건물 등과 결합한다. 여기서 회색은 외부 현실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억압과 이념적 낙인, 관계의 단절, 기억의 침묵이 개인의 감각과 언어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보여 준다. 특히 최윤의 「회색 눈사람」에서 회색은 가난과 역사적 상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주체의 윤리적 감각을 함께 드러내는 상징을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의 회색은 감각의 마모와 생존의 불투명성을 표상하며, 2000년대 이후의 용례에서 회색은 고층 아파트, 거리, 회색의 공간, 먼지, 생활도구, 돌가루 묻은 인간의 몸과 결합한다. 이 시기의 회색은 거대한 이념 대립이나 명시적 정치 억압의 색이라기보다, 현대인의 일상적 피로, 환경적 불안, 생활세계의 획일화, 인간성의 탈색을 드러내는 색으로 사용된다. 특히 김동식의 「회색 인간」은 회색을 비인간화의 표지로 제시하면서도, 인간이 그 회색의 조건을 넘어설 가능성을 함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장에서는 이러한 시대별 변화를 다시 의미 구조의 차원에서 재배열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한국 현대문학에서 회색 은유는 세 단계의 전이 과정을 보인다. 첫째, 회색은 하늘, 공기, 황혼, 장막, 도시와 결합하며 시대적 풍경의 색으로 나타난다. 이 단계에서 회색은 인물이 놓인 세계 전체의 불안정성과 침체를 드러낸다. 둘째, 회색은 누더기, 얼굴, 청춘, 눈사람, 인간과 결합하며 존재의 생명력 상실과 인간성의 탈색을 나타낸다. 이 단계에서 회색은 외부 세계의 색을 넘어 주체의 내면과 존재 조건을 규정하는 색으로 이동한다. 셋째, 회색은 회색 경향, 회색분자, 회색빛 침묵, 회색지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언어와 인식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이 단계에서 회색은 사상적 낙인, 판단 유보, 발화의 정지, 인식의 불투명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기호가 된다.

따라서 본고가 밝히고자 한 회색 은유의 변천은 단순히 시대별 의미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회색은 외부 세계를 물들이는 색에서 출발하여, 인간 존재를 무채색화하고, 나아가 인간이 세계와 타인을 인식하고 명명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은유로 확장된다.[24] 이러한 전이 과정은 한국 현대문학 속 회색이 단순한 우울이나 모호성의 표지가 아니라, 근대 이후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화와 주체의 감각 변화를 압축하는 복합적 은유 체계임을 보여 준다.

본고는 한국 현대문학에 산재한 회색 용례를 시대별·의미 구조별로 검토함으로써, 회색이 한국 현대사의 감각적 변화를 드러내는 중요한 색채 은유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에서 다룬 용례는 수집 가능한 작품과 문장을 중심으로 한 것이므로, 모든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회색과 인접한 잿빛, 납빛, 무채색, 흐릿함 등의 표현까지 함께 검토한다면 회색 은유의 의미망을 더욱 폭넓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4) 은유의 전이와 의미 구조에 대해서는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Zoltan Kovecses 저, 이정화 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참조.

▮ 참고문헌

권보드래, 「최인훈의 『회색인』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권성우, 「최인훈의 『회색인』에 나타난 현실 인식 연구」, 『어문학』 74, 한국어문학회, 2001.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 49-1, 2015.
박종빈, 「한국 문학에 표현된 색 이미지의 상징성에 관한 고찰 — 현대 시문학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3-3,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0.
배경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소외양상 고찰」, 『인문연구』 67, 인문과학연구소, 2013.
유승희, 『최윤 소설의 역사기억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21.
유임하, 「분단현실과 주체의 자기정립 — 최인훈의 『회색인』」, 『한국문학연구』 24,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1.
이은섭, 「'색'과 '빛'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인문논총』 54,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05.
이한나, 「'젠더번역' 관점에서의 최윤 소설 — 최윤, 「회색 눈사람」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최선우, 「색채가 인간심리에 미치는 특성 연구 — 1차색과 무채색 중심」, 『한국범죄심리연구』 17-4, 한국범죄심리학회, 2021.
한원균, 「한국 현대문학과 도시공간의 의미」, 『한국문예창작』 7-2, 2008.
Lakoff George and Johnson Mark 저, 노양진,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Zoltan Kovecses 저, 이정화 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민족문화연구원 현대한국어 용례검색기 (http://riksdb.korea.ac.kr/)
기초학문자료센터 - 1950년대 한국 현대소설 원문 해제 (문한별)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metaDataId=4b76f6dc26503e080126695e364e22c2)

【Abstract】

A Study of the Metaphorical System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Gra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Ko, Myung-ju*

This study examines how gray and gray-related expressions function as metaphorical sign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Rather than treating gray merely as a descriptive color term, this paper analyzes it as a literary device that reveals historical consciousness, social reality, and the inner condition of the modern subject. To this end, the study investigates examples of gray-related expressions, including “gray”, “grayish”, “gray tone”, “gray element” and “gray zone” in Korean literary works from the 1930s to the post-2000 period.

The analysis shows that gray in the 1930s to the 1950s signifies the ennui of colonia l modernity and the sense of postwar loss. In the 1960s and 1970s, gray comes to represent ideological in-betweenness under the division system and the fractures produced by in dustrialization. In the 1980s and 1990s, it reveals the internalization of power and the affect of silence, while in the 2000s and after, it expands into a sign of sensory erosion and the opacity of survival. In addition, gray metaphors form three major semantic structures: the graying of space, the decolorization of existence, and the graying of language and perception.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argues that gray in modern Korean literature is not simply a color of melancholy or ambiguity, but a complex metaphorical system that registers the historical changes in Korean society and the shifting sensibility of the modern subject.

Keywords: gray, gray metaphor, color terms, modern Korean literature

접수일: 2026.06.30. || 심사일: 2026.08.07. || 게재확정일: 2026.08.14.

*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